

# 광주에서 미래 AI 유니콘 기업 발굴·성장 돕는다

### 광주시 'AI 파트너십 데이' 성료...유망 AI 스타트업 10개사 참여 딥페이크 오디오 탐지 등 기술력 소개...1대1 투자상담 등 진행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 도시’ 광주에서 유망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투자 유치 기회를 모색하고, 발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AI 파트너십 데이’가 진행돼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24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 사업단)에 따르면 이날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컨벤션홀에서 ‘AI 파트너십 데이’가 열렸다.

‘AI 파트너십 데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사업단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 중 하나로, 혁신적인 A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미래 AI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와 AI 사업단이 지원하는 AI 창업 경진대회와 AI 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성장 중인 글로소리㈜, ㈜하마다랩스, 맨인블록㈜, ㈜헤리티지아이티, ㈜에이아이파크, ㈜퓨잇, ㈜크랩스, ㈜와이와이소프트, ㈜에스엘즈, 한국답리닝㈜ 등 유망 AI 스타트업 10개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딥페이크 오디오 탐지, 헬스케어 AI 상담 에이전트, AI 기반 동영상 제작 솔루션 등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날 각 회사별로 기술력과 사업 모델 등을 소개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I 파트너십 데이’ 참여 스타트업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사업 모델 검증 및 투자 유치 멘토링을 통해 IR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실질적인 피드백과 함께 투자 유치 가능성 등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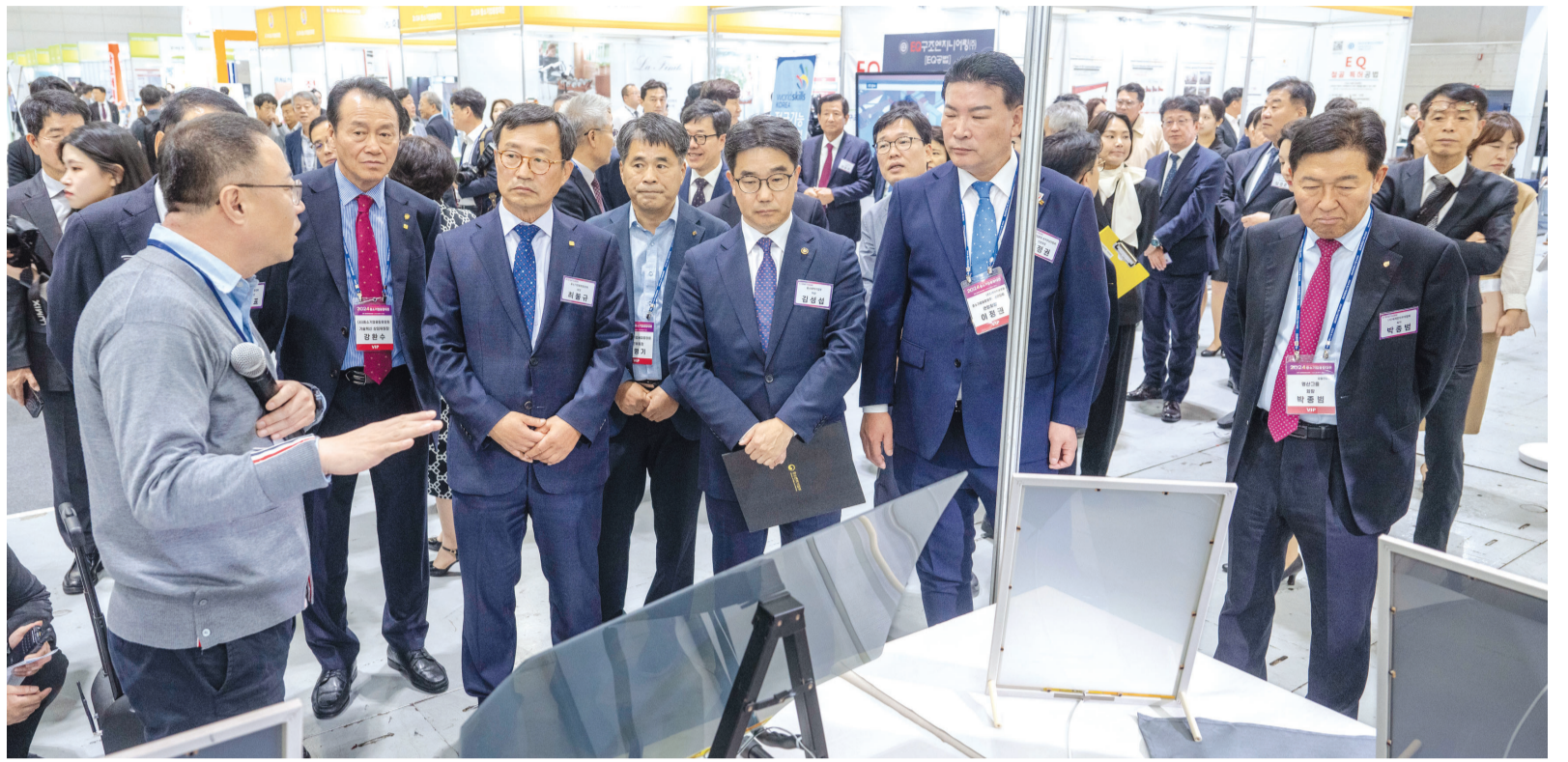
이날 행사장에는 40여 개의 벤처캐피털(VC)과 액셀러레이터(AC)가 참여해 참여 스타트업들의 투자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협업 및 투자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특히 다수의 팀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자들은 AI스타트업과 1대1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심도 있는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이날 행사장에서는 AI 스타트업 제품 전시도 함께 진행되는 등 투자자들이 직접 제품과 서비스를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한 투자사 관계자는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AI스타트업들을 만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만족해 했다.

오상진 AI 사업단장은 “AI분야의 투자환경을 활성화하고, AI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AI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킹과 투자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소기업융합대전 개막

2024 중소기업융합대전이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전시장을 찾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내빈들이 중소기업에서 내놓은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교통약자 30% 육박...“저상버스·특별 교통수단 확대해야”

### 시의회 토론회...장애인·고령자 등 증가에도 저상버스 도입률 45% 불과

광주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2026년이면 교통약자 비율이 광주 인구 대비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동권 증진을 위한 법 개정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현철 전남도 겸임교수는 24일 “장애인에게는 10년이 지나도 강산은 변하지 않았다”며 “저상버스와 특별 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겸임교수는 이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교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토크쇼’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 교

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영유아 동반자)는 인구 대비 28.89%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년 뒤인 2026년에는 광주시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이 29.94%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광주에서 휠체어 등을 타고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450대로, 전체 시내버스 대비 도입률이 45%에 머무르고 있다.

황 교수는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법 개정과 정책 개선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우선적으로 대중교통 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저상버스 도입, 보행 환경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규 중증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장애인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재 운행중인 저상버스도 열악한 인도 여건 등으로 승강장 접근성이 떨어져 사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저상버스 추가 도입도 중요하지만, 보행 환경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저상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의무 교육 지원 의견 등도 나왔다.

전경복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교육과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저상버스 운전기사 의무 교육이 교육 방식과 예산 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면서 “서울시와 같이 실무적인 교육 도입과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은 이명노(민주·서구3) 광주시의원이 좌장으로 참석하고 황 겸임교수가 발제했으며, 김광훈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참여재생에너지전환 위원장, 박종규 광주중증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전경복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교육과장, 도연 광주인권지킴이 활짝 활동가, 김선희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전남도,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확충 나서

### 2152억 투입...저수지 개보수 등

전남도가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생활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리시설과 기계화 경작로 등 7개 분야에 2152억 원을 투입해 그동안 영농활동으로 시행이 지연됐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저수지 개보수 및 준설, 양배수장, 용배수로 정비, 흙수로 구조물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호우와 도깨비 장마, 슈퍼태풍 등 재해로 기존 수리시설에 대한 관리와 보수·보강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0년 이상된 시설이 많은 저수지는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이에 전남도는 132지구에 839억 원을 들여 노후 저수지의 제방, 물넘이, 사통·복통 재설치, 사전방류수문 설치 등 시설 개량과 기능이 저하된 양수장과 배수장을 개선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저수지 물그릇을 키우기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도 영농기 마무르림에 따라 본격 착수한다. 연

말까지 40개소에 총 210억원을 들여 126만㎡의 토사를 준설, 저수지의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인에게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8지구 253억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23지구 158억원을 투입해 계속해 추진하고 있다.

용·배수로를 개량하기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54지구 464억 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266지구 96억원을 투입해 영농편의 제공에 기여할 방침이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113지구 132억원을 투입해 81.46km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재해 예방 능력을 배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적 농업용수 확보와 흙수로 구조물화 등을 적기에 보수·보강해 2025년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총감독 공모

### 전남도, 11월 5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시·연출을 총괄할 총감독을 오는 11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전남도가 주관하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미식과 산업을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행사다. 올해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내년 9월에 개최된다.

총감독 응모자격은 미식, 식품·외식산업, 전시·

연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문화예술 이벤트와 산업 및 기업 간 원활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사람이다.

응모 희망자는 전남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업무수행계획서 등 준비서류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총감독 선임을 위해 미식계와 전시·연출, 문화·관광, 학계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선임위원회를 구성, 1차 서류심사

와 2차 발표·면접심사를 거쳐 총감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임위원회는 전문성과 역량, 실행 계획, 참신성·실행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총감독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 행사장 공간 배치, 국내외 협력관계 구축, 대외 홍보 등 업무를 한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세계의 미식관, 음식 관련 융복합 산업관, 미식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